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기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푸르른 5월을 맞이하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생명과 자녀들의 축복을 깨달아 더욱 주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5월 14일 (토) 제 187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낙태권 폐지’ 판결문 유출에 미국 ‘발칵’

BBC, 미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 방침” ...문건 유출 논란 보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2일 공개한 문건(Supreme Court has voted to overturn abortion rights, draft opinion shows)이 미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트 대법관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작성한 1차 초안으로 알려졌다.

엘리트 대법관은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폐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문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미 현대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7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미 백악관 또한 이례적인 판결 초안 유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Roe v Wade: US Supreme Court may overturn abortion rights, leak suggests).

해당 문건은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헌법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낙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의견이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엘리트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추론이 "유난히 미약하며 '해로운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적었다고 알려졌다.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게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덧붙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만약 해당 보도가 진실이라면 대법원은 지난 반세기 이래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하려 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의 이러한 판결은 '가장 최악의 혐오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는 분노에 찬 시위대가 물려 들었다.

시위대는 이날 '내 몸, 내 권리',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내 몸이니 내가 선택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한편 폴리티코는 유출된 문건에는 '1차 초안'이라고 적혀 있으며, 지난 2월 대법관 사이

에서 회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판결문 초안이 회람되는 중에 대법관이 의견을 바꾸는 일도 있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2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전 연방대법관은 마지막 순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는 의견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이 사실이고 곧 미국 전역에 선포된다고 가정해보자.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여러 '방아쇠' 법들과 이미 준비 중인 법안들로 인해 곧 22개 주에서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증가하는 비종교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로잔운동, 최근 지구촌 인구 동향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과 대안 제시

퓨 연구 센터(Pew Research Center, 이하 퓨)는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비종교 인구의 증가를 강조했다. 2015년에 발표된 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약 11억 명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보고서는 또한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비종교 인구는 61,490,000명이 순수 증가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97,080,000명이 비종교인으로서 추가 되고 35,590,000명은 종교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회교도인들의 순 증가 수치인 32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2017년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 퓨는 비종교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신생아의 부족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 북미 및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부터의 전환으로 인해 비종교인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일부로서 신생아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전망은 2055-2060년 까지 모든 아기의 9%만이 종교와 무관한 여성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무슬림의 36%, 기독교인의 35%와 대조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2%는 종교가 없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ACHING THE WORLD'S RISING NONRELIGIOUS: A MISSIOLOGICAL EXEGESIS OF RECENT POPULATION TRENDS).

(3면으로 계속)



시론 최재근 목사



푸른초장 김창섭 목사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가르기의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라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제26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KEPCCA)공고

[성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회원과 목양하시는 교회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총회)를 세우리라"(마16:18)
일시: 2022년 5월23일 10:00-5월24일 12:00(2일)
장소: 2910N. Santiago Blvd, Orange, CA 92867(오렌지힐스 한인교회)

특별세미나



강사 이정현 박사
개혁 장로회 대학 및 대학원 총장(kapc)



강사 김선중 박사
총회 상임교육연구 위원장(kapc)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EPCA

총회장 신원규 목사
총무 전지승 목사
서기 유의상 목사

발행인 칼럼

지혜의 선택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 둘의 차이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감동을 자아낸 명(名)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렇다. 짧은 기도문 속에 겸비함과 결연함, 그리고 변독이는 분별력까지 분명히 담았다. 우리의 삶에 평온과 용기와 지혜는 함께 어울려야 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어울림이 모호해질 수 있다. 지혜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현실을 수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패착(敗着)하면 타협이 평온으로 둔갑할 수 있고 만용이 용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개인에게 속해 있지만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란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지혜는 공동체를 위한 깊은 분별적이고 밝은 통찰력이 넓은 판단력이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지혜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이끈다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그럴 듯 포장한 험잡꾼에 불과하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모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왕상 3:9-11) 솔로몬이 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 지혜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면 멋진 변화의 감격은 둔갑해지고 치졸한 생존의 기쁨은 넘칠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들었다.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일 기념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선포하거나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푸틴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진작 선택하지 않았어야 할 선택이 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다. 그의 전쟁선택은 지혜롭지 못했다. 그 어떤 이유가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수많은 민간인,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가치있는 이유이었는가. 지혜로운 선택의 공공성을 여지 없이 짓밟은 미련한 선택이요 사악한 처사였다. 이제라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일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책 앞에는 모든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지혜로운"이란 수식어가 있어야 한다. 지혜의 선택이 국민 모두에게 가져다 줄 변화와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지도자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았듯이 측근의 사람들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밖의 사람들에게겐 끝없는 고통을 자아낼 것이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지혜는 모든 선택에서 자신은 아플지라도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던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누군들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하나님과 함께 자녀 온전하게 키운다

Desiringgod.org,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 훈육방안 제시

자녀들을 훈계하여 바로잡는 일은 자칫하면 '아기와 목욕물'의 비유가 지적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즉 자녀들이 행한 잘못을 다루려다가 그들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녀들의 죄악된 마음에서 표출되는 문제만을 다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은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훈계하면서) 사랑하는 아기가 아닌 더러운 목욕물만 버릴 수 있을까?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들을 훈계하여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잠 22:15). 한편으로는 그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잠 15:13).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력에 둘러

싸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영웅들이 일찍부터 기를 잃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들을 훈계하는 우리의 목적은 교정에 있지, 처벌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조그만 아이가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무례하게 굴고, 신경질을 내면서 주먹까지 휘두른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한 애정을 잃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는 미워하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아이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아이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When a Child Disobeys: Six Steps for Healthy Correction)?

아이의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여섯 가지 단계의 접근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이가 반항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 즉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구하라.

두 번째로,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라. 선행하고 지혜로운 부모로서 아이를 훈계하는 일은 마치 기계를 다루듯이 정확한 공식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은 올바른 마음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인간



이를 칭찬해 줘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칭찬이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인정해 주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칭찬을 하고 난 후에 훈계하라. 아이

네 번째로, 칭찬과 훈계 사이에는 숨을 두어라. 두 가지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리하라는 말이다. "공을 던져서 전등을 깨부순 잘못에 대해

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 12:6).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징계하시

아이가 반항한다면 먼저 기도하라!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라! 칭찬하고, 인내하라!

적인 애정이나 집착과는 다른 마음을 말한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처럼 자녀들을 지혜롭게 대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닌 사랑의 열매를 낳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성령이 소멸되면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위태로워진다.

세 번째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훈계하기 전에 아

에 대한 꾸준한 칭찬을 한 가정에서 주어지는 훈계가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가 잘한 행동을 칭찬한다'라는 내용의 가훈이라도 벽에 걸어 둔다면 좋겠다. 그 가훈을 따라 행한다면, 아이는 훈계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훈계를 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참아서 교육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혹은 부모가 스스로 폭발할 정도로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자신의 잘못과 부모의 훈계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 준 너의 정직함을 칭찬해 주고 싶구나.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잠시 쉬고 나서) 그런데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일과 어떻게 전등을 복구해야 할지, 그리고 거실에서 공을 던져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저지른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려고 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또한 칭찬해 주시는지 알 아보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밝힌다. "주께서 그 사

는지를 그 아이에게 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 아이를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속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라(골 4:2). 아무쪼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일관되게 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오랜 수고가 사랑의 훈계를 통하여 결실되기를 바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I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람의 첫 걸음마 십계명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별책 첨부)
저자 강기봉 목사
구입문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온라인: WWW.HISFINGERMALL.COM
출판상담: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낙태권 폐지' ...

(1면에서 계속)

그리고 낙태의 합법성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정치적으로 치열한 싸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연방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이번 판결이 지닌 의미다.

그러나 사실 초안은 초안일 뿐이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기존 견해를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전례 없이 초안이 유출되면서 그 과정이 짚아질 수도 있다.

미국 역사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올림포스산처럼 저 높은 곳에서 의견을 아래로 전해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문건이 유출되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러한 대법원의 불투명함과 폐쇄성은 아마 산산이 조각날 수 있다.

미국에서 사법절차의 정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한때 '형제'로 알려진 정도로 쌓였던 대법관들 사이의 모든 신뢰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 형국이다.

지진에 깨져버린 도자기처럼 정지된 규범이 산산이 부서진 이 시대에 또 다른 큰 조각이 떨어졌다.

한편 현재 연방 대법관 총 9명 중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 5명,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폴리티코는 클라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엘리토 대법관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생각에 대해선 분명히 알려진 바 없다.

또한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대법관 3명 중 최소 한 명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초안이 대법관 다수의 지지를 얻어 확정된다면 엘리토 대법관의 이번 의견은 임신 중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할 이전 판례를 뒤집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주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더 많은 제약을 규정

할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50여 년간 여성 수백만명이 누려온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현재 여성들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뒀 대 잭슨 여성건강 기구' 사건을 살펴보면,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잭슨 여성건강기구는 위헌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BS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유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미연방수사국(FBI) 등에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전례 없는 사건으로, 과거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후보 간 잠입으로 미 대통령직이 공석이었던 때조차 일어 나지 않은 사건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들에게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 3~6개월 기간엔 제한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지' 사건을 통해 대법원은 각 주 정부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시기인 임신 24주 안에 임신을 중단하려는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보고된 낙태 건수는 약 63만 건으로, 2010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낙태 여성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19년 낙태 유경험자의 약 57%가 20대였다.

또한 인종별로는 흑인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 15~44세 사이의 미국 흑인 여성 1000명 중 27명이 낙태 경험에 있다.

증가하는 비종교인들 ...

(1면에서 계속)

퓨 보고서는 또한 전 세계 비종교 관련 인구의 대다수(75%)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며, 그 비율은 유럽(12%) 및 북미(6%)보다 훨씬 높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종교인의 자연 증가는 전 세계 총 26,240,000명 중 16,850,000명이었다. 중국, 일본, 한국 및 기타 인구 밀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세속화와 종교적 이탈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비종교인들'의 급속한 성장은 청년들의 낮은 종교적 준행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미국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 40세 미만의 종교를 갖은 성인의 비율은 종교를 믿는 노인의 비율보다 17% 포인트 낮다.

2018년과 2019년에 실시된 퓨의 설문 조사에서는 미국 종교 지형의 변화가 새롭게 나타났다. 미국 성인의 총 65%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12% 포인트

감소했으며, 종교와 무관한 인구의 비율은 2009년의 17%에서 증가한 26%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종교와 무관한 성인의 수가 거의 3000만 명이 넘게 증가했는데, 이는 종교적 이탈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종교 인구의 증가는 종교적 헌신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과 생애 과정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 변화는 '비종교인들'의 수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속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중심에는 많은 선진 경제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경제적 이윤 추구가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종교적 애착이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고 청년기와 중년기를 거쳐 감소하고 나머지 성인기에 걸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에서 생애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고도로 세속화된 사회의 청년들은 종교보다는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초기 성인기에 종교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세속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경우에 목회적 결정은 성경의 초월적 규범이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하여 내려지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영적 관점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많은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비종교 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폴 히버트(Paul G. Hiebert),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앤드류 월스(Andrew F. Walls)가 제안한 세 가지 선교학 이론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체적인 신학에 대한 그의 제안에서 히버트는 진리의 대결(truth encounter), 능력의 대결(power encounter), 경험적 대결(empirical encounter)이라는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타종교를 다룰 때는 진리의 대결을, 정령신앙을 다룰 때는 능력의 대결, 세속주의를 다룰 때는 경험적인 대결을 권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대결로 고등종교적 문제에 접근하고, 능력대결로 민간종교적 문제에 접근

하고, 경험적 대결로 비종교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전 세대의 접근과 논의를 균형있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비종교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아가 세 가지 만남의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만남을 통해 비종교인에게 접근해야 한다. 고등 종교, 민간 종교 또는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종교적 이탈과 그 배후의 세속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속과 신비상승 이론에서 맥가브란은 많은 상황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개종 후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했다. 회심 후의 신비상승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헌신보다는 이 세속적인 관심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끌 수 있고 (4면으로 계속)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는...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5월 2일, 미국의 정치전문 언론매체인 폴리티코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낙태와 관련된 판결문 초안이 발표되어 미국 전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사안을 판결하여 발표할 때까지는 철저한 보안이 생명으로 여겨졌고 지금까지 그 기준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판결문 초안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대법원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태아의 낙태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아주 기본적인 선으로 이해되며 이번에 노출된 내용에는 낙태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법원의 입장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논할 때 가장 중심적인 논지는 낙태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 주(州)의 회가 제정할 수 있는 주법(州法)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미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185년 동안 낙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각 주(州) 의회가 자체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세간에 알려진 'Roe v. Wade' 재판문을 통해 대법원은 낙태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헌법적 권리로 판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재판은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Roe'라는 가명을 가진 여성이 당시 달라스 지역 검사였던 Henry Wade를 대상으로 텍사스 주의 낙태법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판결을 의뢰했고 대법원은 Roe의 요구대로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태아 생존 가능기'(fetus viability)를 24주로 보고 그 이전까지는 낙태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로 대법원 판사 7:2의 비율로 결정받게 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도 의술의 도움을 받으며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즉 '태아 생존 가능기'가 점차 더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기존의 24주까지에서 22주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1992년 대법원은 Casey 사건을 다루면서 태아 생존 가능기가 대략 22주-23주쯤 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일부 주(州)에서 '태아 생존 가능기'라는 시점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미시시피주가 15주 이상된 태아의 낙태를 불법으로 제정했고 이에 반발한 측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자 이에 불복한 미시시피주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더 이상 '태아 생존 가능기'가 낙태의 합법 혹은 불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기준은 각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연방헌법이 아닌 각 주 법에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에도 여성들의 기본권으로 간주되어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각 주(州)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주 의회가 태아 생존 가능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시점 자체에 대한 언급 없이 법률로써 여성의 낙태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낙태가 헌법적 기본권에서 벗어나 각 지역 입법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바뀔으로써 각 주(州)마다 낙태가 합법 혹은 불법으로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고마운 현상 중의 하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면서 낙태율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도의 15-44세 가임여성 1,000명 중 30건의 낙태가 있었지만 2018년에는 11.3건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도 줄어든 것입니다.

창조주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그 일을 시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이 낙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안타깝고도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며 시편 저자가 외쳤던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는 고백에 동참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화려하게 속이기 위해 내 삶은 고치기 않고 바로 있어야 할 기준마저 옮기거나 굽게 만드는 오그라진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눈물과 말씀으로 다시금 그 무너진 자리를 세워가는 건강한 세대가 오기를 기도하며, 살롱.

hankschoi@gmail.c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동서양이 아무리 달라도...

한인들의 미국 이민 초창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 토막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날 몸살이 앓았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 다. 의료 보험도 없던 때라... 자기보다 먼저 유학을 와서 의사가 된 죽마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 다. 안부 걱 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뉘는데 그 의사 친구는 매우 친절하게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동네 약국에서 이런 약을 사다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 다. 이 친구는 그 약을 사 먹고 몸이 회

복됐고 기분이 좋아졌습니 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 친구 사무실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 다. 기가 막힌 이 친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변호사 친구 생각이 나서 전 화통화를 했습니 다. 그 변호사 친구 대답은 여기가 미국이니 까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세상 인심이 이렇게 야박한 미국에 정이 떨어졌다고 합니 다. 또 얼마 후 이번엔 변호사 친구 사무실에 서 상담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또 받았다고 합니 다. 극 단적으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지만 동양사람도 서양에 오 래 살다보면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예화입니다. 참으로 동서양은 완전히 반 대로 돼 있습니 다. 우선 (지정 학 위치)가 서로 반대입니 다. 물론 시차도 반대입니 다.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사물의 이해와 개념 파악, 관습과 행동 의 원리들이 정반대입니 다. 가치관도, 사고의 패턴과 행동 양식들까지도 동서양은 정반 대의 입장을 취합니 다. 동서양 의 다른 점들 하나하나를 메모 했다가 찾아보니 어느 중국인 은 이 주제로 책까지 출판되었 음을 확인해 봤습니 다.

우선적으로 <인종 구성>부 터 다릅니 다. 동양은 주로 단일, 동일 민족들이며 비해서 서양은 복합민족들로 구성됐 습니 다. <결혼식>도 서양은 친 근 결혼이 다반사였고, 동양은 동성동본을 철저하게 구별했 습니 다. 결혼예식도 낮 시간과 밤 시간으로 반대입니 다. <산 모>들 조리법도 동양은 최소 21일~40일은 요지방동 안정 을 취하지만 서양은 출산 후에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합니 다. <아이들 재울 때>도 천정을 향하여, 서양은 엎어서 재웁니 다. 그래서 동양인은 얼굴이 넓적하고, 서양인들은 얼굴이 좁습니 다. <머리 모양>도 뒷머 리가 납작함과 둥근형으로, 색

깔도 검정과 다양한 색으로 나 납니 다. <체형>도 솟다리와 툭 다리로 갈라집니 다. <아기를 업을 때> 등에 업고 가슴에 안는 것이 반대입니 다. <두통>으로 이마를 압박할 때 에 동양은 가로로 묶지만, 서 양은 위아래로 묶습니 다. <인 간관계>도 상하 구분이 명확 해야 동양인은 대화기 시작되 지만, 서양인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 에 편함을 느낍니 다. <자녀교 육 방식> 동양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서양은 질문 많이 해! 동양은 안기 형으로 서양 은 그룹 토론식 공부를 선호합 니 다. <자녀체벌> 한국은 집 나가! 서양은 벽을 향하여 앓 아! 또 달라집니 다.

<남녀 차별> '신사 숙녀 여 러분!'과 '웨디이스 앤 젠틀 맨!' 으로 구분입니 다. 동양은 어른 위주이지만 서양은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와 짐승의 생 명을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 다. <장례문화>도, 동양인은 통곡 하나 서양인들은 절제하고 상 복의 색채도 동양은 흰 소복이 나 서양은 검정색을 선호합니 다. <귀신의 세계>도 동양은 처녀귀신이 흰 소복차림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지만, 서양은 총각 귀신이 검은색 정장을 입 고 머리 곁은 올백으로 기름을 바르고 나타납니 다.

<경제 생활>도 월급과 주급 으로 나납니 다. <돈 세는 법>도 동양인들은 내 돈! 내 돈! 안으로 세지만 서양인들은 내 돈! 내 돈! 밖으로 셉니 다. <숫 자 셉>할 때 편 손가락을 엄지 서 반대로 하나 둘 셋을 세지만 서양아이들은 주먹을 쥔 채로 새끼손가락부터 퍼면 서 반대로 하나 둘 셋을 셉니 다. <교육 방식>도 암기와 토 론, 듣기와 질문으로 반대입니 다. <자녀 진로 문제> 동양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러나 서양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반대입니 다.

<주거지역>도 양반들은 남 촌에, 부촌들은 북촌에 모여 삽니 다. <주택 형태>도 한국은 벽돌이나 블록으로...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짓습니 다. 실내에 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것도 반 대이고, <목욕 문화>도 탕안 에서, 서양인들은 샤워 위주로 목욕합니 다. 각 가정의 울타리 문화도 있고, 없음의 반대입니 다. <TV 광고 모델>도 동양은 유명 연예인 중심이라면 미국 은 거의 시민들 중심으로 홍보 합니 다.

<어순과 이름, 주소 표기법>도 반대인 것은 다 알지만, 호 칭 순서도 철저하게 반대인 것 을 잘 모릅니 다. 동양은 성이 언제나 앞에 나습니 다. 예, 김 사장님 → President Kim. 전

화번호도 911→ 119, 411 → 114. <바디 랭킹지-동작> "오 라"와 "가라"는 완전 반대입니 다. <도구 사용> 한국의 톱은 당기면서 썰지만 미국은 밀면 서 썰니 다. 연필을 깎을 때, 빗 자루 질을 할 때에도 반대입니 다. 안에서 밖으로 버리지만, 바깥에서 안쪽으로 깎아 모읍 니 다. <식탁문화> 쌀밥과 밀 빵으로, 숟가락, 젓가락과 포 크와 나이프로 <메뉴 차림> 서양은 순서대로 먹지만, 동양 은 한꺼번에 상차림을 합니 다. 동양식은 고기도 미리 썰어 오 지만, 서양은 통째로 나와서 본인이 썰어 먹습니 다. <개인 과 그룹>이 식당가면 동양은 많이 왔다고 값을 깎아주지만 서양은 복잡하다고 추가 요금 을 부과합니 다. 극히 작은 부 분만 소개했습니 다. 정반대의 것들은 철저히 다양하지 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 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 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가르치는 것입니 다. 아무리 동서양이 정반대 편에 있다 해 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의 복 음은 영원무궁하도록 동일한 줄 믿습니 다. 샬롬!!! (2022.5.7.)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룯 1:14)

‘용비어천가’를 아십니까?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 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에, 한 글로 퍼낸 최초의 책입니 다. 세종대왕은 자신이 만든 한글 의 훌륭함을 이 용비어천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 다. 그렇게 만든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세워진 지 불과 54년 밖에 되지 않은 조선 왕조의 뿌리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 다.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 제 목이기도 했던 ‘뿌리 깊은 나 무’, ‘육룡이 나르샤’ 등의 문구 가 바로 이 용비어천가에 나오 는 내용입니 다. 조선왕조가 뿌 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며, 태조 이 성계의 여섯 명의 조상이 여섯 마리의 용처럼 날아올랐다는 등의 조선왕조를 찬양하는 내용입니 다. 그래서 ‘용비어천 가’는 조선왕조의 뿌리를 과하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 니 다.

그리고, 굳이 용비어천가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나라 들과 왕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을 미화하려고 합니 다. 이 용비어천가와 비견될만 한 글이 성경에도 있습니 다. 바로 룯기입니 다. 룯기는 이스 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 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의 조상 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 문입니 다.

하지만, 룯기가 용비어천가 와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룯기

기로 끌어들이습니 다. 평범한 가 족, 어려움을 겪던 가족 안에 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 다고 말입니 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 의 이야기입니 다. 세상을 창조 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라는 최초의 가족관계를 만드시고, 요한계 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양의

양아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 습니 다.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모암 여인을 아내로 맺어 주었 는데, 이 두 며느리가 룯과 오르바입니 다. 두 아들이 결혼하 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가 정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 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자 식 없이 아버지를 따라 죽었습 니 다.

졸지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암 여인 두 며 느리, 룯과 오르바만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 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 니 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두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혼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 을 세웠습니 다. 모암 지방에서

서는 시어머니의 아들, 그러니 시동생에게 시집을 가야만 합니 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 이가 많으니 불가능합니 다. 이 런 이유로 나오미는 룯과 오르 바가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바 랐습니 다.

그러자, 오르바와 룯의 선택 은 갈라집니 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지만, 룯은 기어이 끝까지 시 어머니를 좃아갑니 다. ‘어머니 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 니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 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 힐 것이라’는 룯의 시어머니를

앓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합니 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된 다면 며느리가 룯 처럼 선하게 보일 것이고, 내가 먼저 룯과 같은 며느리가 된다면 시어머 니가 나오미와 같은 자애로운 어머니로 보일 것입니 다.

그리고, 룯과 달리 친정으 로 돌아간 오르바는 나쁜 며느 리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 을 것 같습니 다. 오르바도 처 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돌아가 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두 번 째 권유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 다. 어찌 보면 시어 머니의 뜻에 순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하지만 바로 이 시집에서 오르바는 시 어머니 나오미의 속 마음까지 는 살피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룯은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계속되는 돌아가라 는 권유에도 돌아가지 않고 시 어머니 곁을 지켰던 것입니 다.

그래서, 룯기가 우리에게 가 르치는 가족의 사랑은 할 만큼 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보 다 더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 다. 오르바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룯처럼 사랑하는 것입 니 다. 남들 다 하는 만큼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속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랑을 하 는 것입니 다. 바로 이런 마음 으로 룯이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다윗의 선조요, 말리는 예 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 라운 복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 하고, 가정의 달, 내가 먼저 가 족을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 하며 살아갑시다. wmcakim@gmail.com

룯기에서 생각하는 가족 사랑 룯기 1:14

는 다윗 왕의 조상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감추 고 싶은 가족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이 족보에 들어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는 점입니 다. 다윗 왕의 조상이란 혈통 도 좋고, 선조들도 위대한 사 람들만 있다고 할 법도 하건 만, 룯기는 이방 여인 룯이 다 윳의 족보에 끼어들었음을 말 합니 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의 이야 기를 그저 평범한 가족의 이야

기인잔치를 통하여 인류 역사 의 마지막도 가족의 이야기로 끝날 것임을 알려주십니 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아 서 우리가 룯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교훈은 무엇 이 있을까요?

룯기에 나오는 가족은 극심 한 흉년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 나 이방 땅 모암으로 이민 갑 니 다. 가장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 말론 과 기론이 있습니 다. 모암에 산 지 얼마 지나지

는 여자 셋이 도저히 살 방도 가 없고, 그렇다고 베들레헴에 모암 여인 둘을 데려가는 것은 하지 못할 짓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불행인지 다행인 지 모르겠지만, 이 두 며느리 에게는 딸린 자식도 없으니 친 정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서 재가하기를 바랐습니 다. 하 지만, 이 두 며느리는 결코 돌 아가지 않습니 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를 유지하면서 재가하기 위해

향한 고백과 결단은 눈물겹도 록 아름답고 귀합니 다.

함께 가겠다는 룯의 결단이 단단함을 보고 나오미는 함께 가기로 결단합니 다. 그리고 이 지 모르겠지만, 이 두 며느리 에게는 딸린 자식도 없으니 친 정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 서 재가하기를 바랐습니 다. 하 지만, 이 두 며느리는 결코 돌 아가지 않습니 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를 유지하면서 재가하기 위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복 이 우리의 성화와 성숙을 방해 할 수 있다. 조건없이 나누는 것은 통합적인 복음증거의 중 요한 부분이다.

셋째,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 들과 우리의 책임과 리더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 류의 공유는 사역의 지속가능 성과 혁신을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달 하고 사명을 전수하기 위해 문 화의 경계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이전에 선교지 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복 을 복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증가하는 비종교인들 ... (3면에서 계속)

서서히 구축을 신분 상승으 로 대체할 수 있어 기독교인들의 세속화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 나님의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 서만 간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 들과 나누어 하나님의 구속사 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 성이 이룬 아이러니한 세속화 를 방지하는 건전한 방법이다. 하나님께 그들의 영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축복을 중단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선택 사항

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스는 기독교 확장의 역사를 기독교가 바로 그 중심부에 서 쇠퇴하고 그 지역의 가장자 리와 그 너머에서 새롭게 뿌리 를 내리는 패턴을 대체로 반복 하는 일련의 확장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패턴은 이슬람교 가 발생지에서부터 그리고 발 생 초기부터 이루어졌던 점진적 인 확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월 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일 도구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자 체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기 독교 공동체들을 폐기하실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쇄적 확장(serial expansion) 이론의 실제적 함의 중 하나는 현재 쇠

퇴하고 있는 기독교의 한 중심 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른 중심으 로 바통을 넘겨 세계복음화의 경주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종교적 이탈 현상에 대 한 선교학적 해석을 토대로 전 인적 만남의 관점에서 복음과 무관한 비종교인들에게 다가갈 세 가지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 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필요가 있다. 복음 전도와 선교적 접근에 있어서 진리의 대결, 능력의 대결, 경험적 대결 의 개념은 통합되어야 한다. 이 것은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논

증,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도로 맞서는 것. 삶의 경험에 내재된 증거(witnessing)의 조합을 의 미한다.

둘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증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 의 자원을 나눌 필요가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궁핍한 사람 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 여러 맥락에서 현대 세속 문화를 특 징짓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소 비주의를 극복하게 한다. 자원 을 공유하면 공동체의 진정성 과 관계적 자질이 강화된다. 베 은 복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복 이 우리의 성화와 성숙을 방해 할 수 있다. 조건없이 나누는 것은 통합적인 복음증거의 중 요한 부분이다.

셋째,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 들과 우리의 책임과 리더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 류의 공유는 사역의 지속가능 성과 혁신을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달 하고 사명을 전수하기 위해 문 화의 경계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이전에 선교지 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복 을 복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연쇄적인 팽창은 리더십이 공 유되고 바통이 현명하고 전략 적으로 넘겨질 때 가능하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가 잘 말했듯이 '하 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토실토실한 포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포도로 만든 다음 우리에게서 단맛을 짜내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복음, 자원, 책임, 리더십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단맛을 짜내실 수 있다. 종교적으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 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희생적이고 영감을 주 는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원에 심어진 꽃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매일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

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는 이유도 매우 단순합니다. 매일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형식주의와 종교주의라는 악한 잡초가 무성하게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거위하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전시키는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한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는 일(doing)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관계(relation-ship)에 우선권을 둡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 시민” 7번 말한 윤 대통령... 핵심 가치는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을 7차례 언급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세계 시민 여러분”을 붙여 선언

과 다짐의 대상을 국외로 확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높아진 탈세계화 기류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화합과 국가 간 연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지목하면서 “이 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지정학·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대를 국방 외교 무역 금융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탈세계화에 들어가는 시기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 30여년간 공생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탈세계화의 과정으로 지목돼 있다.

이러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

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 기대”

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섬세하게 국민 통합을 준비하고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 수 있는 화합의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에 우려도 있다.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각을 결집하는 데 더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육순중 성북교회 목사도 “국민 사이의 갈등이 상당한데 새 정부가 그 어떤 정책보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보듬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이걸 완수해야 다른 여러 정책을 현실화하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이재서 종신대 총장은 “취임식에 초청받았는데 새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를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기독교인 양성이라는 신학교의 설립 목적을 존중하고 기독교 교육의 고유성과 특수성, 자율성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종원 경산중앙교회 목사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줄어들기를 바랐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정부가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 달라는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균형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도들의 당부는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서울 송파구 강진경(26)씨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데 임대주택 같은 무차별적 공급보다 청년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동국 광주 아가페교회 장로는 “대통령이 보좌진과 측근 소리만 듣지 말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청년들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직업도 얻고 결혼도 하며

집도 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자판기를 통한 5가지 신앙인의 자세

‘자판기 안의 스낵은 강철 코일에 감겨 있다. 그것을 꺼내려면 누군가 현금 투입구에 돈을 넣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다. 우리 구주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실 때까지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인 존재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랜드 교회의 수련목회자인 윌 앤더슨이 9일(현지시간) 기독교연합기구인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 ‘자판기에서 배우는 신학적 교훈 5가지’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그의 두 번째 설화는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자판기에서 스낵을 구입할 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숫자 등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무차별로 뽑지 않으신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엡 1:4)”고 강조했다.

‘패락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도 포함된다. 자판기 먹거리는 방부제와 지방, 당분으로 가득한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이다. 눈을 즐겁게 하지만 영양가가 부족하다. (요 4:13-14).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요 6:35)고 그는 강조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차별법 반대”

교수회는 선언문에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건전한 사회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수회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해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가치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44조1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에서 열린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945년 아홉 살 소년이 미군으로부터 팜프 선물물을 받았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며 간신히 영어로 인사말을 건넸다.



국제로잔위원회 의장인 마이클 오(51) 목사는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은누리교회에서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4차 국제로잔대회 준비 모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버지 오성규씨”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다. 오 목사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의 삶을 이어갔다. 한국에서 살 아본 적 없는 오 목사지만 부모의 나라에서 4차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남다른게 다가왔다.

오 목사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삼삼, K드라마, BTS의 고향이 된 한국을 생각해 봤다”면서 “120여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 2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이 지금은 2만 1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197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서울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로잔과 세계 선교를 위한 매우 특별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오 목사는 4차 대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도 부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등 아시아 지역 교회가 함께한다는 점이다. 오 목사는 일본과의 인연도 깊다.

그는 98년 미국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같은 해 일본으로 가 2년간 선교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사역했다. 신학교인 CBI재원을 세워 총장까지 지냈고, 올네이션스펠로십 교회도 개척했다.

로잔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트리니티 신학대 시절 로잔운동을 배웠고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로잔 젊은 지도자 모임에선 개회연설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하면서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로잔대회를 이끈 존 스토틀 목사와 두 번의 점심을 먹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로잔 이사회에 합류한 그는 42세이던 2013년 3월 국제로잔위원회 총재 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최연소이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오 목사는 4차 대회에 대해 “선교에 대한 진지한 헌신과 도전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시아 교회가 화해와 사랑, 협력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 목사 개인의 목회 비전을 물었다. 그는 자신의 책 제목인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I'm nothing)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미국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남장로교회에서도 매우 견고하게 확립되어져 있었다.

앞으로 미국 남장로교회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로버트 루이스 뎀니(Robert Lewis Dabney)와 제임스 헨리 돈웰(James Henry Thornwell)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몰튼 스미스(Morton T. Smith 1923-2017)는 "하지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훌륭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뎀니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 이상의 것을 진술하였다."

미국 역사학회 회장으로서 유진 제노비스(Eugene D. Genovese)는 "19세기 미국 남부 교회는 정치적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적, 도덕적으로 인상적인 사람들을 자랑했다. 그 중에서 신학자, 교수, 사회 비평가로서 로버트 루이스 뎀니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로버트 루이스 뎀니는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신학자이며, 교육자이다. 그는 유니언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텍사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그리고 오스틴 신학교(Aust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있었다.

루이스 뎀니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사람이면 그를 비판하던 사람이면, 그를 알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신학교 교수라기보다는 성경의 예언자에 더 가깝다"고 미국 미시시피 책순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신 루카스(Sean Lucas) 교수가 말했다. 그리고 신 루카스 교수에 의하면, "뎀니는 여러 면에서 19세기 미국 남부 사람들의 열정과 문화에 대표적인 사람이며, 남부의 사도로 불리웠다 (apostle of the Old South)."

뎀니의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은 그의 사후 40년 이상 동안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후에 절판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출판사들은 다시 출판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 책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바빙크와 바르트 같은 유럽의 신학자들도 미국 남장로교 신학자 뎀니를 존경하였고, 프린스턴의 찰스 핫지는 뎀니에게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프린스턴의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스는 "뎀니 박사는 유능한 정치가이며, 뛰어난 철학자이며,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높이 평가했다.

뎀니는 서재와 강의실에서만 활동한 신학자가 아니라,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고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였다.

뎀니는 1820년 3월 5일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다. 뎀니의 가정에는 칼빈주

의와 청교도적인 근면, 겸소성과 함께 남부의 귀족적인 요소와 함께 공존했다. 뎀니는 어렸을때부터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고, 부모님들로부터 칼빈주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다.

뎀니는 버지니아에 있는 햄든-시드니(Hamden-Sydney)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샬롯츠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로 편입하여 그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후에 유니언 신학교(버지니아)를 졸업했다.

뎀니는 대학 시절(햄든-시드니) 강력한 부흥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 라고 고백했다. 뎀니가 유니언

뎀니가 공부한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는 당시 북부의 프린스턴 신학교와 함께 구학과 진영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정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지켜나갔다.

뎀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특히 프란시스 샘슨(Francis R. Sampson) 교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중에 뎀니는 자기에게 영향을 준 3가지 요인을 말했다.

- 1)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문학석사 과정;
- 2) 유니언 신학교에서 샘슨 교수;
- 3)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사상(튜레틴은 17세기 제네바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도르트 종교회의의 대표자이며 그의 책 Institutio

의 상호 피해를 막기 위해 기도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 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뎀니는 남부 진영의 편이 되었다. 뎀니는 남부의 명분은 의롭고, 북부는 "양키나라(Yankee-dom)로서 악하다고 믿었다.

뎀니는 미국의 남부 전쟁이 뉴잉글랜드의 중앙집권주의, 북부의 노예제도 폐지론자들과 그들의 진보적인 의회주의자들은(radical liberal Congressional hacks)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코뱅파의 원리(Jacobin principles)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자코뱅파, Jacobins, Jacobin Club은 프랑스 혁명기에 생긴 정당파

by the Scriptures as sinful)라고 했다. 노예제도는 남부에서 지극히 유익한 경제적, 도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it had been the most beneficial economic and moral system for all concerned in the South).

뎀니의 이러한 주장은 분명하게 잘못된 진술이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속박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속박까지 풀어주어 자유함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신약의 기본적인 윤리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이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뎀니는 자기 자신이 남부의 전통과 남부의 문화권속에서 노예문제를 생각했고, 이에 대한 성경 해석도 매우 주관적이었다.

1856년 남부가 패배하자, 뎀니는 남부에 갑자기 발생한 새로운 많은 문제들에 직면했다. 전쟁후에 미국 남부 지역의 고립이 순간적으로 무너졌고, 동시에 남부 기독교의 보수주의가 붕괴되어졌다(the breakdown of the relative isolation and conservative Christian consensus of the American South).

그리고 국제적으로보면, 프랑스의 정치적 급진주의(French political radicalism), 독일의 성경고등비판(Higher Criticism of Scriptures), 그리고 영국의 진화론 사상이 미국 남부에 크게 밀려왔다.

또한 전도 부흥 운동의 지도자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와 무디(D. L. Moody)가 개발한 부흥 및 전도의 방법론들은 상당히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주관적 은혜를 제시함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19세기 미국 남부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뎀니는 교회의 근본을 무너지게 하는 세속적이며, 인본적인 사상들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칼빈주의 신학과 교회를 지켰다.

1870년 뎀니는 남장로교회 총회장이 되었고, 북장로교회와 연합을 반대했다. 그는 공공 교육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배척했으며, 무디-생기 형태의 부흥운동을 반대했고, 미국 남부지역의 사회적인 모든 분야가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글들을 많이 썼고, 설교와 강연을 하면서 정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남부의 지도자들은 뎀니의 주장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뎀니는 그 사회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람들은 뎀니를 논쟁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cantankerous) 별명을 붙였다.

(9면으로 계속)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9)

로버트 루이스 뎀니 (Robert Lewis Dabney, 1820-189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1841년 유니언 신학교를 입학), 미국 장로교는 신학과(New School)와 구학과(Old School)로 나누어져 있었다.

구학과 지도자는 프린스턴 신학교

Theologiae Elencticae 3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나중에 찰스 핫지의 조직신학이 출판되어 튜레틴의 책을 대체하였다.

1853년 33세의 나이로 뎀니는 버지

니아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 그는 햄든 시드니 대학의 학장으로, 뉴욕 Fifth Avenue Church로부터 담임목사로,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로부터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 머물렀다. 뎀니는 1853년부터 1883년까지 30년간 유니언 신학교 교수로 있었다.

뎀니에게 영향을 준 3가지 요인 *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문학석사 과정

* 유니언 신학교에서 샘슨 교수 * 프란시스 튜레틴 (Francis Turretin) 사상

의 찰스 핫지였었고,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하는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신학파는 수정 칼빈주의를 채택했고, 정통적 칼빈주의 신학을 포기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불어닥친 후기 계몽주의(post-enlightenment) 사상을 수용했다. 신학파의 신학적인 지도자들은 주로 예일(Yale) 출신인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 조셉 벨라미(Joseph Bellamy),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주니어(Jonathan Edwards, Jr) 등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찰스 핫지와 뎀니보다 한 시대 앞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신학은 그들의 후세들에게(신학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핫지와 뎀니가 활동한 19세기에는 신학과 사상이 한 세대 전보다 더욱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나아갔다.

뎀니는 문답식(dialogue) 교수법을 사용했다. 강의하기 2일전에 칠판에 여러가지 질문들을 적어놓았다. 이 질문들의 대부분은 그의 조직신학 책 서두에 있다. 또한 그는 학생들에게 튜레틴의 라틴어 조직신학 책을 읽도록 하였다.

그가 유니언 신학교 교수 시절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1861-1865). 남북 전쟁의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방 탈퇴와 노예제도 철폐 문제이었다.

뎀니는 전쟁 직전에 같은 미국인들

과 연관시켜 비판했다. 뎀니는 북쪽을 가리켜 말하면서, "미국의 원래 주 정부와 지방 권력을 강조한 입헌 공화국(original constitutional republic)의 구조를 허물어 버리고,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뎀니가 노예제도 폐지를 비판한 것은 인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노예 제도의 비도덕성은 인간 보편가치관 가운데 하나이다.

뎀니는 남북 전쟁시에 남부 연방 장군인(Confederate general) 토마스 스톤웰 잭슨(Thomas J. Stonewall Jackson)의 군목이면서 참모장의 역할을 했다.

뎀니는 "버지니아와 남부를 변호함"(A Defense of Virginia and Through Her of the South)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통해서 그는 노예제도는 성경에서 죄악으로 명백하게 정죄된 것이 아니다(not explicitly condemne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423-9700,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772)8021112, estrosos@yahoo.com 68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디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850)423-9700, Fax:(213)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산사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635-1842(H), (254)6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계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9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9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9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9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9)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4) 우리의 죄를 대적하는 성령

우리에게 성령과 새로운 품성이 주어지게 된 것은 죄와 그 욕심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는 말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갈 5:17)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 또는 새로운 영적 품성은 육체를 거스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다(벧후 1:4-5). 우리 속에는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법이 생기게 된다(롬 7:23). 이 두 개의 법이 싸울 때 마음의 법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두고 죄의 법을 자유롭게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것처럼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은 우

개의 축이 필요하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은혜는 시들게 되고, 대신 죄의 욕망이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약화되고 강박하게 된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뼈는 쇠하게 되며(시 31:10, 51:8) 사람은 연약해져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시 40:12, 사 33:24). 한때 겸손하고 상냥하며, 상한 심령을 갖고, 타인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



우리의 의무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고후 7:1). 우리는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의무가 있다(벧전 2:2). 또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후 4:16).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들은 매일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죄의 소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함에서 진보를 이룰 수

7) 우리 자신에게 있는 악

죄를 죽이지 못하는 원인은 마음속에서 죄의 쓴 맛을 음미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삼키기 때문이다. 은혜와 자비에 대한 생각에 자신의 상상력을 고정시켜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그대로 소화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바꾸고, 죄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마음이 강박해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8)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

(1) 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선한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경우이다. 죄를 이기려는 노력이 없는 신앙인의

"우리의 의무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의 의무는 매일 죄를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것"

리의 삶과 영혼이 달려 있는 싸움이다. 매일매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품성과 성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대 적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자원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5)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결과

이런 의무 태만은 우리 영혼을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후 4:16)라고 말한 상태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상황으로 만든다. 거꾸로 다윗의 집이 죄를 짓고 사울의 집이 은혜를 받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마음속에 주어진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성취라는 두

해 애쓰며 주님의 계명에 열심을 가진 자라고 여겨졌던 크리스천들이 죄를 죽이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차갑고 화를 잘 내며, 세상의 사람들과 사물에 동화되어 신앙을 저버리고 무서운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된다. 죄를 죽이려는 노력에는 두 극단이 있다. 한 극단은 굳은 결의로 죄를 이기려는 자세인데, 이것은 결국 율법적인 태도로 남의 흠을 잡고, 분노와 시기, 그리고 악독과 교만함을 낳는다. 또 다른 극단은 자유함과 은혜라는 핑계로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적 입장은 이 양극단을 회피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중용의 입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 우리의 의무는 온전히 기록해지는 것이다

없다. 죄의 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을 자제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다기보다, 오히려 죄와 타협한 사람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원리는 처음 회심해서 죄의 자각과 수치심을 느끼고 죄와 대항하는 새로운 원리를 마음속에 심어 죄를 이기는 보편적인 삶의 토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의 마음속에는 죄가 거하며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칭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죄를 죽이는 자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헛된 시간 낭비, 게으름, 비생산적인 자세, 시기, 싸움, 알력, 경쟁, 분노, 교만, 세속적인 생각, 이기심 등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지표가 되고 있다. 죄를 죽이지 않는 신앙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악은 무엇일까?

내부는 모두 오염되고 무가치한 것들이다.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함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매우 세속적이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영적이지만 실제의 삶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언급하지만 철저히 세상과 영합한 삶을 영위한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자랑할 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2) 죄를 죽이지 못한 신앙인들은 타인들에게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 주어 그들을 속인다. 종교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외형적으로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럴지라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youns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어머니

가정의 달 오월이면 그리운 단어가 있다. 모든 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그 사랑을 먹으며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묘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머니' 하면 코끝이 찡해지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것이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자 고운 어머니는 우리 삼 남매를 키우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사십 대 초반의 어머니는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의 빈 자리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채우시며 열심히 사셨다.

그 당시는 몰랐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이를 훌쩍 넘어 오십 대 초반이 되어 그때를 회상해보면 참 젊은 나이였고 여전히 유혹이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도 삼 남매의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신 어머니가 참 고맙고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에서 두각을 드러내시며 열심히 사신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절정을 이룬 시기는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이다. 첫 아이를 뱃 나는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이 정상이기를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 밤 음식도 매우 조심하였다. 대학 병원에서 출산하던 날, 사흘 동안 진통하던 산모가 있었다.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 육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물려왔다. 간 호사와 의사가 나에게 와서 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처치를 하던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으리라! 불편한 모든 과정을 지나 엄청난 고통을 술하게 참으며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이를 너무 악물어서 입술은 터지고 아래턱은 무척 불편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를 출산한다고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야하셨을까에서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눈물이 되어 흐르고 또 흘렀다.

인간이 성숙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말인 것 같다. 출산 이전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그저 고마움으로만 있었는데, 출산을 경험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그윽한 감사로 바뀌었다.

다음 달에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간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를 위해 품에 좋은 영양제 구입으로 그 사랑을 갚으려 하지만 부족함을 느낀다. '어머니' 이 단어는 값이도 값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품고 있는 말인 것 같다.

yanghur@gmail.com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1-20 직접 발행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센스, 정비사라이센스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경영 대학원 BA, MBA, Ph.D.
국방 대학원 MBA, Ph.D.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항공경영학사 과정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MBA - 항공 안전보안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움이 더 깊어 가는 5월”

20년 동안 변함없이 산에 살면서 나무 위에서 기도하는 육십 대 후반의 어느 어른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 긴 세월을 변함없이 산에서 살면서 나무위에 올라 기도하는 지에 대한 대답은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 막대동이 딸이 세 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 곁을 떠나자 가까운 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곳을 찾으며 딸을 향한 그리움의 마음

이 사무처 지금까지도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이란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움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릴 적 다니던 시골 학교가 그리워서 폐교가 된 그 학교 터를 찾아가는 이들도 있고,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이 그리워 고향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생활의 추억이 그리워 자기가 근무하였던 그 군부대를 찾아 가기도 합니다. 혹은 사랑했던 옛 연인이, 또는 좋은 친구가 그리기도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는 만나고 헤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함께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저런 이유들로 헤어지고 나니 그분들이 너무나 그리워 마음에 저머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그리움은 비단 저 먼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5월은 특별히 그리움의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로 널리 인식되는 달이기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나의 천사요 가장 분명한 하

나 됨의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돌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머니 배속에서 살았고 어머니와 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곁이 계시지 아니한 그 어머니가 너무나 그림과 사무치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홍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젓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부르는 그 노래는 국민 애창곡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둘의 관계와 설정은 자녀들에게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이듯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몸 이신 지라 자녀 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칭호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외에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윤리의 강령인 삼강오륜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높여 <부의 자강> <부자유친>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점차 그리움의 대상인 부모님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워져 감을 보고 듣게 됩니다. 지나 놓고 보면 너무나 그리워질 아버지요 어머니요 후회할 일이 많을텐데, 미처 그것을 몰라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마음껏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고 공경하여 훗날 후회하는 그리움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합니다. 여기 약속 있다는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 절대적인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날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잘 되게 하는 그 비법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교육 투자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한 교육 투자를 해야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는 자녀 사랑이나 자녀교육 투자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도록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중한지만 매우 짧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움의 추억입니다. 아픈 그리움의 추억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그리움의 추억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그림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cyd777@hotmail.com



CMF 가정선교원 어린이 찬양집회를 개최 차세대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

CMF 가정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4월 23(토) 일-25일(주)까지 CMF 선교원 강당에서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 집회는 스태프들이 오전 10시에 모여 예배 장소를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 색색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하며 데코에 힘을 모았

다. 지미 전도사의 인도하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두 유 러브 유어 네이버?’와 같은 노래와 함께 게임과 풍선만들기 등으로 서로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찬양과 예배시간을 갖고 분반 공부, 기도 제목 나눔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 집회는 성경 퀴즈로 시작하여 즐거운 게임, 로이 김 선생의 간증, 저녁 시간엔 탁영준 선교사(예루)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철민 장로는 “이번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소원케 하시고, 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이 집회를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8회 세기연 신앙도서독후감공모전 열린다 “신앙도서 읽고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천 되자”

세계한기독인론협회(회장 이영선목사)가 주최하는 신앙도서독후감공모전이 열린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과 몸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8년째 이어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열리는 2022년 공모는 올해로 8회째이

며 이번엔 선정된 책은 모두 6권으로 다음과 같다. △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지선, 문학동네) △ 내 마음도 될 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먹다 듣다 걷다(이영령,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김성경, 토기장)



미국개혁주의신학의 역사

(7면에서 계속) 뱀이는 정통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온갖 종류의 도전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의 삶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로 향하여 기울어진 것을 막기 위해 열정을 다해 신앙

을 사수한 메이첸 교수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메이첸은 뱀니보다 한 세대 이후의 일이었다. 교회와 진리를 허무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도전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뱀니는 자기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온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에서도 자기의 영향력이 사

라지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뱀니가 제안한 신학교의 미래를 위한 제안들을 거부하였다. 뱀니는 정신적으로 많은 좌절감을 가지고,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에서 도덕 철학 (Moral Philosophy) 교수로 청빙을 받고 수락하였다. 그는 오스틴에서 오스틴 신학교를 세웠고, 사회학, 정치학, 철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

야의 글들을 썼다. 1894년 뱀니는 텍사스 대학교를 사직하고, 1898년 사망하기 전까지 설교와 강의와 집필을 계속했으며, 이 시기에 속죄 (The Atonement)와 실천 철학 (The Practical Philosophy) 라는 중요한 책이 출판되었다. 뱀니는 19세기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 전통적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든든히 세운 참으로 귀한 하나님나라의 종이였다.

참고한 자료들: Thomas Cary Johnson, In Memoriam: R. L. Dabney; The Life and Letters of Robert Lewis Dabney; Sean Lucas, Robert Lewis Dabney: A Southern Presbyterian Life; Dabney, Systematic Theology; Sensualistic Philosophy; The Practical Philosophy; David F. Wells edit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KHL0206@gmail.com

△ 하나님을 말하다(팀 켈러, 두란노) △ 한 달란트(박성현, 장현경, 두란노) 독후감은 레러 용지 3페이지 분량(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출석교회, 직분,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명시 하여 wkc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각각 \$500, \$300, \$200의 부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것은 광고(면)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6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information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목사회, 홀 사모 섬김 잔치

오는 5월 17일, 뉴저지지역에 계시는 홀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하고자, '홀 사모 섬김 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풍성한 만찬과 흥겨운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준비한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나이아가라 폭포 tour를 한 번도 안하신 분들을 위해 6월 22-23일 투어도 준비되어있다.

일시: 5월 17일(화) 11am. 강사: 이용걸목사
장소: 구세군 잉글우드교회 (380 S VanBrunt St, Englewood, NJ 07631)
문의: 박인갑목사 (경조분과, 713-277-8003) 오범준목사 (총무, 201-965-9876)

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범동포 골프 대회"

뉴욕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범동포 골프대회"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5월 18일 수요일에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Wind Watch Golf Course에서 개최 된다.

참가비는 150불이고,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장소: Wind Watch Golf Course, 715 Motor Parkway, Hauppauge, NY 11788
문의: 이창종 목사 917-399-6754

뉴저지 2세 목회자 모임 안내 NJYPN

뉴저지 2세 목회자들의 모임인 New Jersey Youth Pastor Network (NJYPN)이 뉴저지 Tenafly 에 있는 Korean Community Church of NY 에서 열릴 예정이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인 2세 목사님들이 코비드19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재정비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5월 15일 (주일) 4:30 부터 집회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예약: <https://forms.gle/wmNVucXGvvc4JZ5k7>
장소: Korean Community Church of NJ (147 Tenafly Rd, Englewood, NJ 07631)
문의: Shawn Hong (Rccshawnhong@gmail.com) or Michelle Yi (myi2513@gmail.com)

ZOOM으로 만나는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4)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강사 : 조희장 목사) Kidz Bible Adventure는 슈퍼북 커리큘럼으로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과 함께 재미있고, 은혜롭게 성경을 깊이 배우는 과정이며, 이날 아이스브레이크 게임, 찬양과 율동, 슈퍼북 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말씀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소그룹 모임, 한 주간 성경 암송, 읽기 등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키즈 바이블 어드벤처 시즌4(시즌1,2,3과 다른 6개의 커리큘럼을 준비하였다. 2022년 5월 2일 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미주동부시간 7:30~8:50 PM 6주간 진행예정이다. [메모리얼데이 휴무]
대상: 1 - 6학년 (영어로 진행), 등록비: \$60 (둘째,셋째는 \$40로 할인)
문의: wooltarius@gmail.com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뉴저지 목사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23일 월요일 뉴저지에서 개최된다.
문의: 201-805-5129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 포럼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소장 박석현 목사)에서 6월 7일부터 9일에 걸쳐 한인교회 미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메릴랜드 Sandy Cove Ministries 에서 한인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지도자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와 숙박은 무료로 제공 된다.
문의: 소장: 박석현 목사 (408) 712-9876, park1104@gmail.com

5월 뉴욕선교대회를 위한 2차 기도회, 국가 기도의 날

선교사 한 분이 일어설 때 그 나라가 회복 된다!

뉴욕교협의 2/4 분기 교협사역 감사와 5월 뉴욕 선교 대회를 위한 제 2차 준비 기도회 및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5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뉴욕그레이트넥 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임영건 목사(총무)의 인도로 기도 노재화 목사(전 성결 신학대학장),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중보기도분과), 설교 정방영 목사(뉴욕제자교회), 합심통성기도(박황우, 김희숙, 정숙자, 이진아, 박이스라엘, 이지용 목사), 축도 조의호 목사(시문학분과) 순서로 진행 되었다.

"왜 선교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정방영 목사는 뉴욕선



뉴욕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2차 기도회를 뉴욕그레이트넥교회에서 열렸다.

교대회를 앞두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서도 그 땅에 남아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었다. 모두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뉴저지교협 전직 회장 초청 위로연을 마친후 기념 촬영

35회기 뉴저지교협, 전직 회장 초청 위로연

35회기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30분에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시루 연회장에서 전직 회장 초청 위로연을 열었다. 전회장 부부, 임원과 감사, 이사 등 37명이 모여 모임을 진행했다.

1부 예배는 인도 김동권 목사(총무), 기도 윤명호 목사(31대 회장), 특송 뉴저지교협 임원들, 말씀 고한승 목사(회장), 축도 윤영호 목사(3대 회장), 식사기도 이정환 목사(34회기 회장)으로 진행됐다. 2부는 박근재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폐회기도는 정창수 목사(21대 회장)가 했다.

회장 고한승 목사는 예배에서 1장 20-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교협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한승 회장은 "교협이 하는 일이 2가지이다. 공교회를 세우고, 한인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인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나누며 "교협이 하는 일은 한인공동체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야 한다. 하와이에서 시작한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와 한인사회의 역사는 같이 출발한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만들어졌으며 한인교회가 사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들이 교회를 통해 정착했다. 한인사회가 건 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위해 한인교회가 연합하고 간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고한승 목사는 "사순절 영상 연합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32분에게 지원금을 나누며 교회가 연합하는 체험을 했다. 또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호산나대회가 박신일 목사(캐나

다 그레이스한인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임원들은 핑크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로 화사하게 차려입고 한동원 목사(기록 서기)의 피아노 반주로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양했다.

특히 참가한 전 회장 중에는 32년 전에 회장을 역임한 93세 윤영호 목사(3대 회장)가 축도 순서를 가졌다. 전 회장들은 인사를 나누며 그 회기의 특징적인 사업들을 돌아보고, 35회기의 특징적인 사역인 여러 뉴저지 회원 목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사순절 영상 연합 특별새벽기도회를 칭찬했다. 그리고 '회복과 연합'이라는 회기의 주제에 맞게 교협을 이끌어 간다면 회장과 임원들을 격려했다.

(출처: 아멘넷)

(김재상 기자)

패밀리터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무료 웨비나 실시

리틀 페리에 위치한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무료 웨비나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사이에 야기되는 갈등 및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진원 상담가를 모시고 함께 알아본다.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패밀리터치 홈페이지 www.familytouchusa.org 에서 등록



할 수 있다.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동부(NY,NJ)교회</h1>		<h3>뉴욕셋새미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516)632-2004, www.nysetseami.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수요성경연구: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718)361-9199, www.mcoe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75</p>	<h3>뉴욕부르르린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은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학원: 오전 10:00 화,토</p> <p>Tel:(718)265-2694, www.ficb.org 14 Goversen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별주님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배: 오전 10:30 영역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718)461-2810/Fax: 권용1,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양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nyc.org, Tel:(516)387-9940, 9942(EW)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주찬양교회</h3>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다문화특별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구역모임</p> <p>Tel:(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3부)</p> <p>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베이사이드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 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권고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718)229-2698, www.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창년예배 오후 3시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p> <p>Tel:(516)433-0862 8 Duffl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여린양개역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례 EM목사: 임지윤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Tel:(845)848-2013</p>	<h3>온누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p> <p>Tel:(845) 359-1458, http://onnuw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718)886-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 금), 오전 6:30(토) 금요 저녁예배: 오후 8:30, 셋째, 다섯째, 일요일 오후 7:30 권고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p>Tel:(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32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zia S.Paulo CEP 01528-010</p>	
<h3>아르헨티나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54)114-631-1788, AR,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찰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808)685-1859 1130 N. Lil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808)8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연지인 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야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52)33-3507-4111, hanrini@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jajara MEX(멕시코)</p>

2022 국가기도의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마스터키는 기도”

2022 국가기도의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주제로 5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했다.



국가기도의날 기도회에서 청중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송정명 목사(공동대회장/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에게는 강렬한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으며 어떤 어려운 일들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함께 부르짖으려 모였다.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 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며 미국과 개인신앙회개를 최수일 목사(LA글로벌 미션)가 ‘미국을 위한 기도’를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그리고 ‘한인 교회를 위하여’ 양영선 목사(샘물교회)가 기도했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진행으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말씀을 했으며 ‘미국이, 대통령과 임법부, 사법, 군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우준 목사(토랜스조은교회), ‘캘리포니아 주지사과 주의회와 LA시를 위해서’를 국윤권 목사(충현선교회), 그리고 ‘한국에 새로운

정부와 행정부를 위해서’를 김인태 장로(나성순복음교회)가 기도 인도했다. △미국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는 강순영 목사(전 자마 대표)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며 박세현 목사(예수교회)가 ‘감사’를 김영구 목사(세기모서부지부 회장)가 ‘청교도 신앙회복’을 그리고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2의 청교도가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손창민 목사(에브리데이교회)가 기도인도했다. △미국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위하여 라는 주제는 샘신 목사(KACC사무총장)가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며 김철민 장로(CMF선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와 전쟁종식을 위하여’, 유수연 사모(ABC교육위원장)가 ‘평등법, 공립학교 교육과정, CRT 반대를 위해’, 그리고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한인 2세대들이 정계진출, 인종화합’으로 기도회가 진

행됐다. 한편 기도회전에 열린 예배는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시온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어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기도했으며 송정명 목사가 환영인사, 최순복 권사(미주성시화 부이사장)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가 ‘역전승을 이루는 기도(행 12:11-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진목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며 “한국



4/14윈도우 운동 컨퍼런스에서 김남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4/14윈도우 운동 컨퍼런스 성황리에 열려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 하나님나라의 사람들로 양육하며 차세대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4/14윈도우 운동 컨퍼런스가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 장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4/14 윈도우 운동 컨퍼런스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애너하임 매리어트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갈보리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4/14윈도우 글로벌서미 영상소개, 심상은 목사 사회로 열린 컨퍼런스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기도했으며 최완기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잠언 22:6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릇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핵심을 찾고 본질을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모바일 혁명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전화기의 일체화로 20년 동안 공상소설 같은 메타버스, 가상도시, 그리고 우주 세계가 열리는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2000년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전해 나갈 것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고 본질로 핵심으로 몰입하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김남수 목사는 “첫째 어린아이는 도대체 하나님나라에 어떤 존재인가? 한국의 어떤 큰 교단의 70%가 주일학교가 없다. 한국 교회 미래는 암울하다. 이는 심각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며 “왜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로컬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모일 수 있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장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번세미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지를 전해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한 “두 번째 현대교회의 설교자와 목회자가 생각해야 할 핵심은 목회를 설교에 건다는 것이다. 설교가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으로 잘 갖춰지고 성경핵심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 성도들의 신앙은 사실 충분하게 양육 받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바울이 눈 뜰인 산을 오르내리면서 불타는 열정과 뜨거운 가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다. 그곳에서 받은 영감과 계시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들려다 보면서 우리에게 불붙어 우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열정이 이번에 회복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훈 목사(충남 당진동일교회)가 당진동일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통해 부흥 성장한 이야기를 간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이민교회와 4/14 윈도우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 △4/14 윈도우 전략 △공공단체 성경 읽기 (PRS) △공공단체 성경읽기 경험 △북클럽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지역한인목회자세미나

남가주지역 한인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한 페이지로 꿰뚫는 성경의 예배사’란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 총회장 이정현 목사. 세미나는 오는 5월 18일(수) 오전 11시 미주 양곡교회(지용덕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문의: (213)505-1947, (213)500-7803.

데이브레이크 건립축하 및 감사행사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오렌지카운티 캠퍼스 건립 축하와 감사행사가 오는 5월 15일(주일) 오후 3:30분(미 서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5월 16일(월) 오전 7:30분에 개최된다. 데이브레이크 대학교 오렌지 캠퍼스 주소는 321 S. State College Blvd, Anaheim 92806이며 축하 행사는 대면 및 실시간 화상(Zoom)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참석 대상은 데이브레이크대학교 학생, 이사, 후원자, 한국부부가족상담회 정회원과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석대상이다. ▲문의: (310)739-0132

소망소사이터티 “제7회 치매 돌봄 전문 교육” 개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 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이하 소망)에서는 5월 18일(수), 사이프레스의 소망홀(5836 Corporate Ave., #110)에서 “제7회 치매 돌봄 전문 교육”을 개최한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은 회비는 \$150.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소망회원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있다. 이번 강좌의 강사는 최경철(소망 소사이터티 사무총장), 남궁수진 (소망케어교실 팀장)이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양로보건센터 간호사 구함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양로 보건센터)에서 간호사를 구한다. 자격조건은 1) 거주 RN/LVN 라이선스 소지자 2) Medical documentation skill 이 능통한자 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는 이중언어(영어/한국어)가 능통한자이다. 영주권 서포트 가능하다. 이력서는 david-mckong@gmail.com 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davidmckong@gmail.com



OC전도회연합회 5월 조찬기도회에 참가한 참석자들

OC전도회연합회 5월 조찬기도회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와 교계를 위해 기도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전도회 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5월 조찬기도회가 7일(토) 오전 8시 에반젤리아대학교 체펠에서 열렸다. 신용 회장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한기원 목사(에반젤리아대학교 학생처장)가 ‘얼마나 해야 하나요?(마 26:6-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원 목사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너무했다’는 시각이고 하나는 ‘충분했다’는 시각이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한 교회 개척 △4/14 윈도우 전략 △공공단체 성경 읽기 △북클럽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박준호 기자)

미국의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 전쟁의 피해와 아픔이 최소가 되고 극복되기를 위해, 전쟁의 고아와 난민, 피해자를 위해, 인구의 평화를 위해, △OC지역 사회 및 교회와 목회자,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코로나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선교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연합회 사역과 이사, 자문위원, 회원을 위한 기도-다음주 가지여행, 이사 자문위원들의 건강, 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선거에 나서는 한인들을 위한 기도-제시카 차(OC 판사후보), 유수연(가주 하원의원), 박영선(OC수퍼바이저) 등 기도제목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한기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교회 출판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자문위원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KCMUSA창단 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 출판예정

KCMUSA미주한인교회 출판 자문위원 위촉식 가져

제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 미주한인교회 출판 자문위원 위촉식이 5일(목)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미주한인교회(발행인 박희민 목사, 편찬위원장 조명환 목사, 이하 교회)는 KCMUSA가 재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한인교회는 물론 미주인사화에 뜻있는 일을 하기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회사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팀을 구성하여 작업에 들어갔다. 박희민 목사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 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를 조명하여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창의적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오늘 모임은 후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큰 선물을 나누주는 모임이며 중요한 모임”이라고 말했다. 조명환 목사는 “미주한인의 역사와 미주한인교회의 역사가 120년을 앞두고 있다. 이민교회의 고령화와 이민교회의 부흥의 시대의 주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들의 교회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다. 세대교체로 인해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리더십들이 많지 않기에 옛 기억들이 소실되고 있어서 역사 타카웠다. 따라서 120년 역사를 정리하여 현재세대와 후세대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남겨 우리의 이야기가 소실이 되지 않게 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교회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년 현재까지 미국내 한인교회의 역사가 수록이 된다. 총 3개 파트로 나눠서 쓰여지게 되는 데 △파트1은 1903-2022년까지 미주한인전체 역사가 소개가 된다. 한국감신대 전총장 김흥기 박사(역사신학자, 연합감리교 100년사 저자)가 1903-1960년대까지 집필한다. 김 박사는 보스턴, 뉴욕, 시카고, LA, 하와이를 방문하여 아카이브(역사자료실)를 이용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명환 목사가 집필한다. △파트2는 전미주 50개주 최초한인교회사이다. 최초교회 선정 기준은 창립예배를 드린 시점을 우선시 했으며 최초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게 된다. △파트3은 미주한인교단 역사이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속해있는 교단 중 25개 교단이 선정이 되었으며 원고는 교단장, 총무, 그리고 교단내 역사편찬위원이 참여했으며 현재 모아진 원고가 정리단계에 있다. 미주한인교회는 46배판 600페이지로 출판이 되며 자문위원은 필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자문위원은 김찬희 박사, 이창민 목사, 오세훈 목사, 남종성 목사, 심상은 목사, 이상명 목사, 신원규 목사, 이상복 목사, 이승중 목사, 박동진 목사 등이다. 출판은 10월경에 하게 될 예정이다. 배포는 저자들의 교회와 교회사 필요로 하는 단체는 무료로 전달하며 서점을 통해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 지원’ 부서 새 단장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한인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 제공할 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이달부터 기존의 ‘가정폭력 부서’를 ‘폭력피해자 지원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초창기부터 이어온 주요사업으로 2013년 전담부서가 출범하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담부서가 생긴 이후엔 한국어에 능통한 담당 직원들이 법적 절차 지원과 셸터나 주택서비스 연계, 공공서비스 지원 연계,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 등을 모두 한인가정상담

소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피해 여성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비온(Life Beyond)이 생겼고, 2016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 외 주택보조 서비스, 피해자 응호 서비스 등도 제공해 오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데이트 폭력, 인신매매 등 여러 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부서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폭력지원

자 지원부서 김선희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번 부서명 변경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폭력에 대한 인



한인가정상담소 폭력피해자 지원부서 김선희 매니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한인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것은 GBV@kfamla.org (213)338-0472로 하면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국교회와 선교가 제발 하나되길...

1세대 선교학자 '미스터 할아버지' 라는 뜻의 록파

1세대 선교학자인 전호진 박사가 9일 KPM 주최로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전호진 박사 문집 헌정예배와 기념세미나'를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1세대 선교학자로 국내 선교학의 기틀을 잡은 노(老)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끼리끼리 모인다'며 애정 어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선교가 쇠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충고도 더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회(KPM)는 9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전호진 박사 문집 헌정예배와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후배 선교사들과 제자들은 1970년대부터 선교학자이자 선교사의 길을 걸으며 후학을 양성하고 해외 선교학 자료를 소개해 온 전호진 박사의 발자취를 정리한 문집 '땅 끝까지 세상(世上) 끝날 까지'를 발간, 헌정했다.

전 박사는 "문집을 보니 300여편의 논문을 썼더라. 당시 선교학 교수가 없었으니 기고 청탁만 오면 거절하지 않고 썼던 거 같다"며 "오래 전 썼던 글까지 찾아내 문집으로 엮어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선교가 보완해야 할 점"을 보냈다.

그는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매월 서양의 선교사들은 교과를 초월해 친교를 위해 모이는 걸 봤다. 그런데 우리는 끼리끼리 모였다"면서 "이게 우리 한국 선교"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 호소한다. 한국교회와 선교가

제발 하나되기 바란다"면서 "코로나 이후 한국 선교가 반성과 회개를 통해 업그레이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배 후 진행된 기념 세미나에선 제자에게 후배 선교사들이 전 박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문집에 게재된 헌정 논문을 발표했다.

백석대 장훈태 전 교수는 전 박사를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자이며 선교사들의 영적 선배님이었다고 학자였다"고 표현했다.

고신대원 김성운 교수는 "전 박사님은 제 은사다. 헌정예배를 앞두고 박사님께 배운 걸 떠올려봤다"며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자립하는 교회,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 박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1세대 선교학자 5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강조한 게 무엇이라고 물었다. 첫 손에 '자립선교'를 꼽았다.

전 박사는 "78년 9월 선교학 박사를 쫓던 유일한 학교,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자립선교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가 말하는 자립선교의 핵심은 돈으로 선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나이 들어 미움 받는 소리 듣고 싶지 않는데 부득이 해야겠다"며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리고는 "해외 사역지에서 언어가 안 되니 돈으로 선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

떨어지면 문 닫게 된다"면서 "돈 없는 지역은 영적으로 더 뜨거운데 그걸 모르고 돈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돈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종속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했을 때 일화를 꺼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생겼다. '미스터 할아버지'라는 뜻의 록파"라고 했다. 애정과 존경이 담긴 별명 록파로 불리다가 전 박사는 많은 노력을 했다. 시설이 열악한 기숙사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했고 자동차 없이 걸어 다녔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니 어느 순간 자신을 록파라고 불렀다는 게 전 박사의 설명이다.

전 박사는 "저를 록파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선교사님은 우리를 여러 번 죽인 거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캄보디아어로 '위합니다'와 '죽인다'는 단어의 발음은 미묘하게 비슷해 현지인들만 구별할 수 있었다. 발음이 비슷하니 그동안 전 박사는 의도와 달리 '죽인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

전 박사는 "누구도 잘못된 발음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친근함과 존경심이 생기니 발음을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전 박사가 한국교회와 선교

단체에 바라는 건 하나다. 그는 "한국교회는 아시아 기독교의 최고 모델이다. 개인주의 건국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 등 보이는 선교에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며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는 선교, 제자를 키우는 선교를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불의 앞에서...편한 길로만... 용서해 주옵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이 9일 강원도 홍천 소노갑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한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참회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장합동 산하 전국 163개 노회 소수 목사와 장로 2000여명은 '은혜로운 동행'(시 133:1)이란 제목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늦은 밤까지 기도 부흥과 예배 회복,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목사와 장로 직분으로 부르셨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편한 길로만 가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회개했다.

기도의 불을 지핀 것은 열띤 설교였다. 총신대 총장을 역임한 정성구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개혁교회의 꿈'(히 11:24-26)을 제목으로 설교하며 강단 약화를 안타까워했다. 정 목사는 "칼뱅은 목자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양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과 이리가 양들을 물어갈 때 분노로 이리를 쫓아내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강단이 약해졌다. 우리 안에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세속주의의 이리들이 양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런데 목사들은 우리 영혼의 죄와 민족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고 장로들은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게 됐다"고 호통쳤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개혁교회의 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지켜온 복음과, 교회 개혁자들이 피 흘려 지켰던 복음을 포기하지 말자"고 역설했다.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원로목사는 저녁 집회 설교 원고에서 '마음을 찢어야 산다!'('골 2:11-14)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주를 따라잡니까, 돈을 따라잡니까"라고 물었다. 권 목사는 "(교단) 총대가 1500명이나 되는데 부정부패

를 막을 쓴소리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교단 개혁에 앞장섰다가 돈 몇 푼에 불의와 타협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 A를 지지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B에게 간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망가질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지성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성적으로 죄를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청산하는 전인적 회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광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목사와 장로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 사회도 산다"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일 문화행동 아트리의 뮤지컬 '더 북'(The Book)을 관람한다. 11일까지 열리는 기도회에는 류응렬(미국 와싱턴총장로교회) 김남준(열린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선다. 1964년 시작된 목사장로기도회는 예장합동의 최대 연례행사다.

었다"며 "매일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이도, 받는 이도 울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기총 대표회장인 신화석 목사는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며 "바울처럼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나누고 자 할 때 이 전쟁이 오히려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다시 선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정승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구호 현황에 대해 들려줬다. 서 선교사는 "전쟁 직후 많은 이들이 역으로 몰렸는데 처음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재무장

백석총회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9~11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은 700여명의 노회 임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2000석 규모의 넓은 공간을 빌렸고, 입구에 대인소독기를 설치했다.

주강사로 나선 장종현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지난 19년 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주장의 근간에는 모든 교리의 근거와 원천은 성경이고, 학문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그러나 신학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 같은 원인으로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짰다. 신학교들이 지나

치게 학문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신학을 분과별로 세분화한 목적은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독창적인 학문의 업적을 세우는 데 집착한 나머지 원래 신학의 목적은 잊은 채 자기 분야의 학문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학문에 갇혀서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배운 선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선배들은 정식 목회학 학위는 물론 학문 중심의 전문화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성경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계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종교의 세속화, 코로나19가 겹친 악조건 속에서 세계 교회의 영적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적극적으로

으로 표방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신학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을 '성경'으로 삼길 주문하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거나 머리모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운동을 통해 생명력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사로 나선 관인섭 서울백석대학교회 목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이라면서 "성령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만큼, 개혁주의생명신학도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총회는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노회 임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임원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노회 임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교단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새 임원분들에게는 총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이를 통해 신입임원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일 관계 개선 의지 확인

어릴 때부터 찬송가 부른 크리스천 고백

평화의 메달은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당시 사용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이다.

하도야마 전 일본 총리는 수상 소감에서 "반겨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반도를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지은 우리 일본인

은 더 이상 사죄하지 말라고 한국인이 말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좁 전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났다. 한·일 관계 개선의 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다. 제게도 선생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부른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

다.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소강석 새에넬교회 목사,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봉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장, 김희선 W-KICA 공동회장, 신부호 3·1운동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대외협력위원장, 하가 대수계 전 일본 총리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소통의 능력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

목회 청사진 그리는 한국교회생태계연구네트워크(교생연N)

한국교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 전망이 있지만 지금 같은 남성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으로는 다양해지는 사회를 품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20대 여성과 젊은 신학생, 헌직에 있거나 은퇴한 목회자, 선교사들까지 여러 세대는 물론이고 교인과 목회자가 어우러져 목회 청사진을 그리는 공동체 연구네트워크(교생연N·대표 한경균 목사)가 주인공이다.

거창해 보이는 모임의 속내는 실상 소박하면서도 알차다. 상반된 모습을 지닌 교생연N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기 시작하던 때 독서 모임으로 출발했다. 현재 정체성도 독서와 토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땅히 이롭고 없던 모임에 교생연N이라는 명패가 걸린 것도 16개월이 지난 뒤였다.

거리두기로 자연스럽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책을 읽고 토론했다. 신·구세대 목회자와 교인이 진행한 토론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사색과 성찰이 부족한 시대, 신학적이면서도 목회적 질문을 던지고 이 과정 속에서 희미한 활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모임이 계속될수록 교생연N에 참여한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미래 교회에 투영돼야 건강한 교회를 바랄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지속적인 독서는 고민과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그동안 교생연N 회원들은 '한국기독교개혁성사(옥성덕)'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박영호)' '햇빛을 받는 곳마다(사무엘 H. 마펫)'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밝힌 한국 기독교 저항사(강성호)' '포스트 크리스티엄 시대의 한국기독교(장동민)' '아시

아 신학 산책(안교성)' 등의 책을 읽었다. 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걸어갈 미래를 짚은 책들이 주를 이뤘다.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경균 목사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생태계를 미리 구상해 보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목사는 "20~30대 신학생들은 레드져 목회 청사진을 그리는 공동체 있다. 한국교회생태계연구네트워크(교생연N·대표 한경균 목사)가 주인공이다. 거창해 보이는 모임의 속내는 실상 소박하면서도 알차다. 상반된 모습을 지닌 교생연N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기 시작하던 때 독서 모임으로 출발했다. 현재 정체성도 독서와 토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땅히 이롭고 없던 모임에 교생연N이라는 명패가 걸린 것도 16개월이 지난 뒤였다. 거리두기로 자연스럽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책을 읽고 토론했다. 신·구세대 목회자와 교인이 진행한 토론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사색과 성찰이 부족한 시대, 신학적이면서도 목회적 질문을 던지고 이 과정 속에서 희미한 활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모임이 계속될수록 교생연N에 참여한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미래 교회에 투영돼야 건강한 교회를 바랄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지속적인 독서는 고민과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그동안 교생연N 회원들은 '한국기독교개혁성사(옥성덕)'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박영호)' '햇빛을 받는 곳마다(사무엘 H. 마펫)'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밝힌 한국 기독교 저항사(강성호)' '포스트 크리스티엄 시대의 한국기독교(장동민)' '아시

과 청년들의 참여가 보편화돼 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미국 장로교(PCUSA)나 호주연합교회(UC) 등 해외 교회들은 여성과 청년 총대 비율을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다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해 열린 총회에 참석한 총대 1500명 중 고작 34명(2.27%)이 여성이었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도 총대 644명 중 여성 총대가 61명(9.4%)에 그쳤다.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은 예장합동과 고신, 합신 등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청년 총대도 마찬가지다. 예장통합은 연권회원으로 참석한 청년회전국연합회장 1명이 전부였고 기장 총회는 4명의 청년 연권회원이 참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장통합이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생연N 구성원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은화 의정부 주의모님교회 집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와 남녀가 조화롭게 참여해 수평적 논의를 하는 모임을 찾기 힘들다"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교회도 이런 구조를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대홍 파주 서로교회 목사도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는 시대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론장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일방적 지시가 보편화 됐다"며 "교생연N의 가장 큰 장점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고민의 깊이를 더한다는 데 있다. 소통의 능력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김승근 안양 초대교회 목사는 "모여서 힘을 갖자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변화하자는 모임"이라며 "2030년 이후 한국교회 흥년이 오기 전 한국교회가 지닌 은사와 자원을 잘 발견하고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세기총, 우크라 선교사 28가정에 성금 전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는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 28가정에 성금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세기총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 초청 기도회 및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성금을 받게 된 선교사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세기총 전 대표회장인 고시영 목사는 '이 시대에 누가 다윗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인물로 이 시대엔 다윗 같은 자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승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구호 현황에 대해 들려줬다. 서 선교사는 "전쟁 직후 많은 이들이 역으로 몰렸는데 처음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독특한 기도운동이다.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에 “한국식 기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특이하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교회는 부러워하였다. 1990년대의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오래된다.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무능을 잘 볼 수 있게 하였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해야 할 기회이다.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함께 기도운동의 불을 지펴야 한다.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1990년에 네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훈련에 참가하게 하였다. 두 주간 동안 선교훈련에 참석을 하였는데 마치고 싶었던 한 참석자가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알 것 같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새벽기도이고 하나는 통성기도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나를 찾아와 새벽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다니던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교회당을 열어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한 달 동안

안 교회 앞 계단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사용하던 사무실을 열고 새벽기도를 함께 시작하였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나에게도 체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밤에는 더 초롱초롱하고 새벽에 잠이 많은 나에게 새벽을 깨우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새벽 기도회를 영어로 가지게 되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함께 찾으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다. 기도는 의무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교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침의 일과가 되었다. 함께 필리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는지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들이 새벽기도를 한다는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몇 개의 교회 등에서 함께 나눠 달라는 요청이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Capital City

프들의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상원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며 국가조찬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며 필리핀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

선교에 필수적인 영적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은 한정되고 고갈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자원만

은 무제한적인 자원인 것인데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할 때에 선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팬데믹의 지역이 사라지기 전에 선교적 영적 자원을 확장하고 개발하며 기도운동을 살려야 하는 때이다.

첫째로 선교사들의 기도운동을 살려야 한다. 감사한 일은 팬데믹으로 오갈 수 없었던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새벽

으로 감당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이 버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 각성에 힘써야 하며, 함께 서로를 돌봐 줄 수 있는 책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적인 일이 관계가 될 때에는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고 밝혀서 사탄의 공격 거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둘째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의 영적 고리를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선교사역의 성패는 현지 지도력의 개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계승될 지도력이 생겨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많은 외형 건물은 남아있는데 정신은 남지 않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가 선교지의 아픔이고 현실이다. 현지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맺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된다면 그 사역의 현장은

약했던 것이 진정한 영적 자원의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교회는 기도의 내용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범위를 넓혀 나갈 때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며 깊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부서들 사이에서도 긴밀한 기도제목의 나눔이 있어야 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이웃의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적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인교회에 주신 독특한 은혜를 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서 영적 자원을 깨우는 기도운동이 확산되도록 한국교회는 섬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은 선교사의 책임이다. 한인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에 부흥을 경험하고 중보기도의 혜택을 입으며 자라고 선교지에 파송받은 수혜자들이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깨우기 위하여 쓰임 받고, 파송한 조국 교회의 영적 재각성을 위하여 선교지의 순수한 영성을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영적 자원은 고갈되지 않고, 사용할수록 더욱 넘쳐나게 새로운 자원의 보고가 채워지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배운 한국교회의 신앙의 참모습은 기도를 통하여 증거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기도의 동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dr.yongcho@gmail.com

“영적 자원을 확장하고 개발하라”

라기보다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깨달음과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기도 모임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특히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필리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하면서, 필리핀 미전도 종족과 세계의 미전도종족에 대한 기도 책자를 필리핀판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500부씩 매월 발행하고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선교센터의 허락을 받고 Global Prayer Digest 필리핀 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Baptist Church, Kamuning Bible Christian Fellowship, Bread of Life 등이다. 우리들에게 새벽기도에 대해 알려 달라던 KBCF의 당시 목회자 Ef Tendero 목사는 후에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총재로 섬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우리들은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돕게 되었고, 대표적인 교회들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에게 새벽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도록 요청하였던 겸안과 의사인 Dr. Melona는 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섬겼다. 필리핀 하원 기도회를 만들고 스페

기도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였다. 필리핀 한인 선교사협의회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필리핀 선교사들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에 각 국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 새벽기도회 강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함으로 글로벌한 선교 기도모임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확장성이 큰 기도회가 팬데믹 기간에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항상 영적인 일은 호사다마로 시험을 만나게 된다.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사명

기대할 만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선교사들 가운데는 현지에서는 임시로 떠났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의 자원이고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영적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추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내용이 선교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기도,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시간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중보 하는 기도는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력가)

원 스토리 19강 / 성막, 송아지 우상(출 25-40장)

성막, 송아지 우상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라(출 23:25)는 말씀은 '쌍방 언약'처럼 보이지만 이 '시내산 율법 언약' 역시도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인 된 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으로 마치 '약혼 선언식'을 치르신 하나님은 혼인을 준비하시기 위해 '혼인 서약서'와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신혼 집과 같은 '성막'을 지시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일 밤, 낮을 그곳에 있습니다(출 24:12-18).

성막 지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증거케와 속죄소'(출 25:10-21), '진설병을 두는 떡상'(출 25:23-30), '등잔대와 기구들'(출 25:31-40), '성막과 휘장'(출 26:1-37), '번제단'(출 27:1-8), '성막의 뜰'(출 27:9-19), '제사장의 옷'(출 28:1-14), '판결 흉패'(출 28:15-30),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출 28:31-43), '제사장 직분 위임'(출 29:1-37), '분향단'(출 30:1-10), '물두멍'(출 30:17-21), '거룩한 향기름'(출

30:22-33) 그리고 '거룩한 향'(출 30:34-38)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을 지니라

성막을 짓는데는 금, 은, 놋, 각색 실, 짐승들의 털과 가죽, 조각목, 각종 향 재료와 각종

보석 등이 필요했습니다(출 25:3-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출애굽 할때 애굽 사람들로 부터 취한 물품도 있었습니다(출 12:36). 그런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출 25:2)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물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 지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분명히 알아 할 것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출 25:8).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고 지시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야만 합니다(출 25:8,9,40, 26:30, 27:8, 31:11). 노아가 방

주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과 같이(창 6:22)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뜻하는대로 짓는 것은 '우리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령하라

하나님은 성막의 안쪽 지성소에 있는 증거케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명령하실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출 25:22). 속죄소가 없이 증거케만 있으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래서 속죄소가 증거케를 덮고 하나님은 그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온전한 속죄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의식'은 이제 '성전'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라

등불의 기름은 감람으로 짜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여 끓이지 않게 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야 합니다(출 27:21/ 레 24:1-4).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감람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히 4:14) '성령의 사역'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마 28:20).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라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출 29:38-46). 그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살 이상 된 자들의 수효를 계수하여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하려 함이고 그 속전을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부지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출 30:11-16).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과 여러가지 기술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관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만들도록 하셨습니다(출 31:1-12).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재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만들었다고 여겨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기술'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태서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민 9:15~23) 446장

두 번째 유월절 후 인구 조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시나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행진할 때도 원칙이 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뜰 때 행진해야 했으며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서 모두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행진할 때의 원칙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기에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

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결정권은 늘 그 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데 이 길은 처음 걷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에는 누구나 초보 운전자입니다.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민 11:1~15) 545장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만나’ 아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70명을 나오게 하신 후 ‘한 달 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잔뜩 모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열 호멜’(약 2,200리터) 이상을 모았습니다.

탐욕스런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만나로 만족 못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공급’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수 그림에도 불구하고 중보합시다 (민 12:13) 364장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없음에도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11장은 ‘공동체 탐욕’을, 12장은 ‘개인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보

다. 영향력 있기를 원한 탐욕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내지 않고, 오히려 중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 기록합니다. ‘온유’의 히브리어 ‘아나하’는 ‘매여있다. 길들여졌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짐을 받아, 용납함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 레위자손의 임무 (민 14:28) 214장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40일 간 정탐 후 돌아온 그들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아나 자손들 앞에 서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임의로 내뱉었던 ‘죽겠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쏟아 낸 말의 열매를 거두며 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삽시다.

금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킵시다 (민 16:1~3) 220장

모세는 반역한 지휘관 고라와 그 일당에게 향로 250개를 준비해서, 향을 그 위에 둘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거부하며, 오히려 큰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피신시키시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피신시키시고, 열

병으로 징계하셨고, ‘만 사천칠백 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늘 공격의 대상이었고, 고라당 역시 모세의 자리를 탐해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민 18:21~24) 595장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 직무를 알려주십니다. 아론을 돕도록 ‘레위 지파’를 붙여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들 중에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중에서 거제물,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특별히 드린 모든 것, 드린 제물의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직을 맡기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며, 보내심을 받은 레위인들입니다.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4)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

4월 24일자 뉴욕 타임스 신문에 픽토섹슈얼(fictosexual)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말로 가상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 픽토섹슈얼은 인형이나 비디오 게임의 인물 등 가상적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기사는 인형과 결혼한 사람을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로보트의 발달에 따라 무생물체와의 교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상성애자들이 증가할 것을 예고합니다.

같은 신문에 구글이 “포괄적인 언어(inclusive language)”기능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기능의 목적은 글 쓰는 사람들이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의미하는 “police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단어는 여자경찰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police officer”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또, 인류를 의미하는 “mankind”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humankind”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부도덕한 행위 또는 정신병으로 여겨졌던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LGBTQ “Pride(자부심)”이라는 말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BTQ는 여성 동성애를 의미하는 lesbian,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gay, 양성애자를 의미하는 bisexual,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transgender, 그리고 퀴어(queer) 또는 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한 questioning의 두문자어(acronym)입니다. 참고로, 퀴어는 ‘기묘한’ ‘괴상한’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LGBTQ 자부심을 수용하여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 혁명은 1953년 헤프너(Hugh Hefner)가 포르노를 정상화하고 대중화하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봅니다. 1983년 비디오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포르노 같은 영화들이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DVD로 인해 포르노가 더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 핸드폰에서도 포르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960년 피임약이 사용이 허용되고 1965년 6월 7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피임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어 임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혼외정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에는 브라운(Helen Gurley Brown)이 쓴 Sex and the Single Girl (섹스와 독신녀)이라는 책이 독신 여성들의 성적인 활동을 부추겼습니다. 그 외에도 1960년대에는 마약, 누드, 성행동의 자유가 대폭 늘어났고,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시작된 스톤월 폭동(Stonewall Riots)은 LGBTQ 인권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Will & Grace(윌과 그레이스) 같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LGBTQ를 정상화하려는 계획적인 시도가 계속되어 근년의 6월 Pride Month(자부심의 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와 영화는 계속해서 LGBTQ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LGBTQ를 조장해왔고, 결국 2004년에 메사추세츠를 시작으로 해서 동성결혼 찬성의 움직임이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일어나더니 드디어 2015년 6월 26일에는 대법원에서 Obergefell(오버게펠)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LGBTQ 옹호자들은 반대자들에게 동성애 혐오자, 고루하고 편협한 사람, 차별주의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Equality Act(차별금지법안)이나 그와 유사한 법안들을 통해 LGBTQ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LGBTQ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역사상 유래없는 세속화입니다. 오늘날처럼 황금시대에 TV에서 LGBTQ를 정상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송출한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포르노가 널리 퍼져있고, 오늘날처럼 포르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춘을 정상화하고 합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인정하는 “sex positivity(성 양성)”이라는 표현이 “marriage equality(결혼 평등)” “gender affirmation therapy(성 인증요법)” 등과 더불어 사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곳곳에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성 도덕을 접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역사상 유래없이 세속적인 가치로 크리스천 자녀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세속화 앞에서 크리스천들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세상을 멈추고 버스에서 내리듯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숨거나 도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낸 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쿠로였습니다(11절). 디오스쿠로는 제우스(Zeus)와 리다(Leda)의 쌍둥이 아들로서 캐스터(Caster)와 폴룩스(Pollux)였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배, 그것도 우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이 닦은 길을 사용하여 로마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여 13권의 서신서를 썼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행 20:20)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하여 타락한 문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음행을 피하고”(고전 6:18) 문화를 사용하여(고전 9:22)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엡 4:15)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상성애자들에 관한 기사를 사용하여 “진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의 “포괄적인 언어” 기능에 관한 기사를 볼 때,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남녀의 성경적인 보완관계에 관해 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건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온두라스

살롱!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주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수난의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여인들(막 14, 15장)과 구레네 시몬, 백 부장, 아리마데 요셉 등 카메라로 잠깐 나타난 몇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연(主演)과 같은 조연(助演)"의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에 마지막을 지킨 나약한 모습이지만 강인한 여성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한 불굴의 희생과 자기부정의 삶이 제자의 참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연을 도우면서 '맛깔나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Extraordinary 역할을 한 평범한 ordinary 삶이지요. 지난 사역 소식과 함께 기도제목들을 올립니다.

1. 시카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3월 24-30일 시카고를 방문하여 베들레헴 교회와 락포드 장로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하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이상규 목사)는 매년 단기 선교로 온두라스를 섬겨주셨는데 동역하셨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반갑게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온두라스 렌카성경학교와 겨자씨학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 온두라스 방문합니다

4월 24-30일 온두라스를 방문했습니다. 렌카성경학교: 처음 온두라스 사역을 시작하던 2000년부터 렌카 인디언 마을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 이러한 성경 학교가 세워져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시는 사역자들을 세우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렌카성경학교는 저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호엘목사, 올빈 목사, 미리암 전도사님과 엔리케와 브렌다를 멕시코 후아레스 All Nations 신학교로 보내어서 신학교육을 받게 하였고, 호엘 목사님과 미리암 전도사님은 멕시코 All Nations 신학교와 구 아테 말라 CETECA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학교 : 렌카 마을에는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호엘 목사님과 올빈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묻힌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어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땅속에 숨겨진 소중한 아이들을 찾아서 양육하는 겨자씨 학교를 미리암과 브렌다와 같은 지도자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3. 멕시코 All Nations Seminary 졸업식

5월 21일 멕시코 후아레스에 있



는 All Nations Seminary 졸업식을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호엘 목사님이 석사학위를, 엔리케와 브렌다 부부가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의 열매이며, ANS신학교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는 귀한 사역자들의 삶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졸업식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두라스에 세워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한 렌카 인디언 마을 교회 개척 사역은 센트로 교회를 비롯한 12개 교회입니다. 건강한 토착교회로 성장하여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 아직 교회가 없는 마을에 토착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SEED MISSION CENTER/ 컬페퍼 기도원

이제 SEED 선교회는 센터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Culpepper 시대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21일 SEED 선교회에서는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컬페퍼 기도원을 매입하였습니다.

SEED MISSION CENTER에서는 국제본부 행정 및 역사자료 전시관 및 도서관, 선교전략연구 및 지도자 개발 및 훈련, 기도 및 영성 훈련장 등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SEED 선교회를 설립하신 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생전에 국제 본부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센터빌 지역에 30 에이커의 대지를 마련하셨지만 국제본부 건물을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컬페퍼 기도원은 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와싱턴 중앙 장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2003년에 기도의 초소로 세운 기도의 동산입니다. 미국 동부의 관문인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Dulles

국제공항(IAD)에서 1시간 20분가량 떨어진 약 270 에이커가 넘는 아름다운 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Mission Village/ 은퇴 선교사 마을 사역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은퇴 선교사 마을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은퇴 선교사 마을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7. 넷째 희건/ Timothy와 Karla 결혼을 합니다

넷째 희건이가 8월 6일 시카고에서 결혼을 합니다. Timothy와 Karla는 Urbana Champaign, Illinois에서 학교 선생님이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지난 4월 26일 시카고에서 신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결혼예식과 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며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드림

Segyunjang@gmail.com, 미국 703-586-8925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3.서로 인정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 영적 원리는 '서로(피차: Each Other, One Another)'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One Way)가 아니라, 쌍방 간의 관계(Both Way)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 부모자식간, 교우간, 친구간, 이웃간 등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이고 영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성경적 사례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요13:34,15:12,17,롬 12:10)', '서로 용서(용납)하라(말 4:2,32,골3:13)',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골3:9)',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서로 대접하라(벤전4:9)', '서로 인자

예배의 인도자, 가정의 양육자의 역할도 충실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아내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 몸매 좀 가꿔!',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누가 장모 딸 아니랄까 봐!', '입 닥치고 밥이나 해!', '짜는 소리 좀 하지 마!', '또 시작이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왜 그리 멍청해!' 등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역대기 취급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고, 아내는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에서의 아내의 일-'육아, 밥 짓기,설거지, 빨래, 청소, 쓰레기 처리,

서로 인정, 가정문제 해결, 가정선교 확립

하게 하라(엡4:32)', '서로 불쌍히 여겨라(엡4:32)', '피차(서로) 복종하라(엡 5:21)', '피차(서로)에 비방하지 말라(약4:11)', '피차(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골3:16,히3:13)', '서로 문안하라(출18:7,롬16:16,고전16:20)', '서로 종노릇하라(갈5:13)', '서로 투기하지 말라(갈5:26)' 등이 있습니다.

성경적 사례에는 없지만, 가정선교적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또 다른 '서로'의 영적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인정하라!'입니다.

'남편이 죽어도 듣기 싫어하는 7가지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1)누구 보라고 외모를 꾸며?, (2)사랑이 밥 먹여 주나?, (3)도대체 대화가 통해야지!, (4)당신네 식구들 땀에 못 살아!, (5)잔소리를 안 할 수 있어?, (6)왜 전화 안 받아?, (7)내 친구 남편은... 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잃게 되고, 사회, 직장에 나가서도 기를 펴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족하고 덜 떨어졌지만,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면, 남편은 가정을 위하여 처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제 몸을 안 돌보고 열심히 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家長, Headship)으로서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제사장,

자녀교육' 등을 인정하고, 귀가 후 '여보, 오늘 힘들었지!'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의 피로가 다 가시고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돕는 배필과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관리자, 자녀에 대한 교육자, 가정의 영양사의 역할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비록 무심하고 무뎠다고 못 생각하고 부족한 남편이고, 바가지나 굵고 듣기 싫은 잔소리꾼의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늘입니다. 마음의 버팀목인 아내와 남편이란 이름은 세상 속에서 당신이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 꿈과 소망을 함께 키우고, 사랑의 반역자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내 사람, 바로 당신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한 세상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며, 가정선교를 확립하는 지름길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미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영어, 목사, 평신도
배달 주소, 전화/Fax, 받는분 이름, 교회/기관명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남아공 문성준 선교사 장녀 아영 양 후원자 찾기

남아공 문성준 선교사의 장녀 아영 자매를 돕기 위해 뉴저지 한 성개척교회 송호민 목사가 지난달 26일 낮 기독교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송 목사는 문성준 선교사와 종신대 동문으로 문 선교사의 사역을 후원해오고 있다.

코비드 팬데믹의 힘든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사역하고 있는 문성준 선교사에게서 아영양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영양은 고등학교 5년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남아공 대학입시고사에서 전교 3등으로 졸업했으며 미국의 브라운, 코넬, 듀크 등 5개 명문대학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장학금 없이는

입학이 불가능한 상태. 송호민 목사는 최근 문 선교사와 통화에서 '모든 것을 접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인재양성 차원에서 후원자(단체 및 회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준 선교사는 2004년 12월 신학공부 차 가족(4명)이 남아공에 갔으며 박사과정 중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선교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사역이 커짐에 따라 두 딸의 역할도 더 크고 빛나게 됐다. 현재 남아공 마당교회는 매 주일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며 그중 절반은 어린이들이다.

▲문성준 선교사 이메일: moondy71@gmail.com



마당교회 주일예배에서 문성준 선교사와 동생(드림)과 함께 찬양 인도하는 아영 양

아영이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문성준 선교사의 딸 문아영입니다. 아버지의 신학공부를 위해 부모님을 따라 이곳 남아공으로 온 것은 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온 가족은 아버지의 공부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마치고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GMS에서 훈련을 받으셨을 때는 제가 7살이었고 그 때부터 아버지의 선교를 따라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찢어진 악보를 넘기며 동생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이 넓어지고 커짐에 따라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몫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주일 저는 선교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을 때 제 마음도 어느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기 싫었고 투정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투정, 음식 투정으로 마음이 불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선교지에서 심방을 돌아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내가 그 아이들에 비해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사소한 투정은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역과는 별개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 방과후 수업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집이 없어 힘들게 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나무 집을 짓는 일을 부모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 제가 직접 남아공 공무원들을 만나 행정

적인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1채의 나무집을 지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돕는 일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너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학생인 저로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쉽게 지치고 한계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영향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 더 큰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선교지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성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5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마지막 남아공 대학입시고사

에서 전교 3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였고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는 큰 상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던 중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아공 입시준비도 바쁘고 한참이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로 하고 미국 대학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짬짬이 시간 내 SAT 시험도 준비하고 미국 대학정보도 알아보고 에세이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아공대학에서 영주권이 없는 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주권이 없던 것이 많이 속상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아공 영주권이 없기에 더 큰 세상인 미국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 입시를 마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미국 대학에 원서들을 제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장학금 신청과 함께 서류를 제출했지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한 외국인인 합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너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내 성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나머지 5곳의 훌륭한 대학에서 모두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브라운대학을 결정했습니다. 브라운대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전공을 1학년 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전공들은 있지

만 가능한 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저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5년간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정말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확신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에서 문아영 올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dQmTQfXZ8KffDK13Jrhyv9fCuNBhGUI?usp=sharing>

▲연락처: 송호민 목사 (201)725-4117, homini75@hanmail.net

(이성자 기자)

미5개 명문대 입학허가 받았지만 장학금 없이 입학불가 7살부터 아버지와 동역, 음악가르치기, 방과후 수업, 집짓기 등

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역과는 별개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 방과후 수업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집이 없어 힘들게 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나무 집을 짓는 일을 부모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 제가 직접 남아공 공무원들을 만나 행정

적인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1채의 나무집을 지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돕는 일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너무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학생인 저로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쉽게 지치고 한계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영향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 더 큰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선교지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성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5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마지막 남아공 대학입시고사

한 너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내 성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나머지 5곳의 훌륭한 대학에서 모두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브라운대학을 결정했습니다. 브라운대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전공을 1학년 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전공들은 있지

만 가능한 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저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5년간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정말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확신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공에서 문아영 올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dQmTQfXZ8KffDK13Jrhyv9fCuNBhGUI?usp=sharing>

▲연락처: 송호민 목사 (201)725-4117, homini75@hanmail.net

(이성자 기자)

책 소개



진유철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

나성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유철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를 살아갈 이들에게 '팬데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경의 지혜를 담은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경고하시고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이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11)'고 말씀하셨다"며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도구이며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하신다"고 기록했다. 또한 "지금 이 시기

에 재앙의 시대를 살아간 노아의 모습을 통해 팬데믹 시대를 살고, 팬데믹 이후의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제 1부 '하나님과 세상대하기', 제 2부 '하나님과 방주 짓기', 제 3부 '하나님과 방주살기', 제 4부 '하나님과 언약누리기로

나뉘어 있으며 △신앙은 주인 싸움 △죄 바이러스 팬데믹 △그러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언약 △바른 향함의 100퍼센트 순종 등 총 17개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진유철 목사는 "노아시대의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 시대에 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아야"

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기 바란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저자 진유철목사는 20대에 남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선교하며 오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을 목격했으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는 파라과이 남미순복음델레스메교회와 브라질 순복음 쌍파울로교회 담임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사역경력으로는 순복음세계선교회 중남미총



회장, 북미총회장과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저서로는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다.

책에 관한 자세한 것은 (323)913-4499 김영환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린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거지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왜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